

## 〈빨간 독수리(*Águila Roja*)〉: 검은 전설의 탈신화화와 극복의지\*

임 주 인  
(서울대학교 강사)

### ◆ 국문초록

〈빨간 독수리〉는 스페인 역사의 어두운 면에 집중하여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 숨기고 싶었던 검은 전설의 실체를 재해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교재판소와 재판관의 불의, 중남미 원주민에 대한 박해와 학살, 영국 해적과의 갈등, 모리스꼬에 대한 박해와 추방 등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곤살로의 입을 통해 자민족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 여기서 주체가 되어지는 인물은 평민들이다. 귀족들의 도덕적 타락이 난무한 사회에서 가난하지만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평민들은 귀족과 서로 대립된 구도를 형성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지만 가족과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은 〈빨간 독수리〉로 형상화된다. 드라마 방영 기간 내내 트위터와 페이스북, 게임 등으로 시청자를 비롯한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덕택에 현대적 시각에서의 재해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스페인 뿐 아니라, 이란 등 아랍에서도 방영된 이 드라마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모리스꼬의 추방 문제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검은 전설의 주요 논점이었던 종교재판으로 인한 고문과 원주민 학살 등은 유럽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순혈주의의 경직성과 비인간적 측면을 고발하면서도 이들 이교도와 원주민에 대한 평민들의 포용력과 인류애적 화해의 이미지는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날조되어 오도된 역사 바로잡기에 좋은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주제어 : 〈빨간 독수리〉, 모리스꼬, 검은 전설, 화해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1479).

## I. 들어가면서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으로 위장하는 형태의 가짜뉴스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언론계에서는 ‘페이크 뉴스’, 혹은 번역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의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기존의 황색언론과의 차이점이라면, 황색언론은 취재 기자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페이크 뉴스는 처음부터 언론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조작하여 기사의 형식만을 기존 언론의 성격으로 위장한 채 유포하고 있다는 데 위험성이 크다고 하겠다. 페이크 뉴스의 뼈대는 인터넷 유머 사이트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찌라시 글이다. 이런 찌라시 중에는 기존 언론의 로고, 기사의 형식, 기자의 이름 등을 넣어서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유포하고 이에 대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언론 기사로 위장한 페이크 뉴스들이 퍼지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매스컴이 발달하기 이전인 17세기부터 가짜 뉴스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의 실체를 스페인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스페인에는 ‘검은 전설’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검은 전설이란 “16세기 후반부터 퍼진 스페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이르는 말, 혹은 어떤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한 불리하고 일반화된, 대개 근거 없는 의견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했다.<sup>1)</sup> 이 정의에서 “부정적인”, “근거 없는”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가짜 뉴스’를 정의하는 “위장하는”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검은 전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저서와 관련 사건 및 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 넓게는 가짜 역사 또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자국의 역사나 자아에 대한 자존감을 잃고 비뚤어진 자아관에 기초한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거나 식민사관에 얽매어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1) Julián Juderías, *La Leyenda Negra. Salamanca: Junta de Castilla y León*, 2, (2003; primera edición de 1914). pp. 3-24.

업매여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비하는 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일본인들이 감행했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조상의 얼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이같은 경험과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 찾기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작품으로 스페인 국영방송(rtve)에서 7년에 걸쳐 방영된 역사드라마 <빨간 독수리>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된 배경은 이 작품이 갖는 대중 참여적 특성 때문이다.

여기서는 펠리페4세가 치리하던 17세기 무렵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주요 인물,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 정복과 포르투갈 독립, 올리바레스 공작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데, 작가 자신의 역사관이나 견해를 투영하기 보다는 주인공 곤살로(Gonzalo)와 그의 하인 사투르(Satur) 간의 대사를 통해 시청자를 적극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빨간 독수리>를 트랜스미디어 측면에서 바라본 스토리텔링의 기법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도 시도되었다.<sup>2)</sup>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공간 속에서 독자의 참여와 관련한 서사의 특성을 피에르 레비의 집단이성과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독자의 텍스트 참여에 대한 서사구조의 특성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연구를 확장시켜 시청각 장치를 활용한 드라마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드라마 <빨간 독수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트위터나 페이스북, 비디오게임과 퀴즈 등을 통한 시청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시청률을 극대화시킨 작품으로 트랜스미디어를 이용한 대중 담론의 형성과정을 통해 ‘검은 전설’의 탈신화화와 극복과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

2) Carmen Costa y Teresa Piñero, “Nuevas narrativas audiovisuales: multiplataforma, crossmedia y transmedia,” *ICONO14*, 2012, Vol.2.

## II. 드라마 <빨간 독수리>에 나타난 역사적 관점

### 1. 검은 전설과 반 스페인 정서

스페인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아랍과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 “스페인 황금세기 세르반테스의 작품 중에 나타난 무어인 연구”와 “중세 로만세로에 나타난 아랍인의 흔적”에서 당시 스페인의 아랍인 정책이 강경하면서 비관용적이었던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세르반테스가 알제리에 무슬림에게 포로로 잡혀서 5년 간 생활했던 경험을 기록한 작품 『술탄 부인』과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 국토회복전쟁과 1609년 무슬림 추방 정책으로 훗날, 스페인 기독교도들이 지중해 근방에서 추방된 무슬림과 유대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곤욕을 치러야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검은 전설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세와 황금세기를 거치면서 스페인에서 실행한 대규모의 추방정책과 ‘순혈주의’에 기초한 비관용적인 정책이 국제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sup>3)</sup>

처음 검은 전설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보헤미아의 빛(Luces de Bohemia)』을 서술한 바예-잉글란(Valle Inclán)이다. 바예 잉글란은 스페인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에서 ‘검은 전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죄수가 막스 에스뜨레야(Max Estrella)에게 자신이 도망치려 한 죄로 고문당하고 처형될까봐 두렵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검은 전설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막스: 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죄수: 저들은 나를 고문하는 걸 즐긴단 말이야!

막스: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죄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막스: 비겁한 놈들. 저러면서 검은 전설은 저들에 대한 음해라고 한단 말이지!<sup>4)</sup>

3) Ricardo García Cárcel, *La leyenda negra*. Barcelona: Altaya, 1997, pp. 165-166.

4)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Temporary%20Internet%

잠시 후,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죄수는 “도망자에 대한 최고 형벌”인 총살형에 처해진다. 이를 두고 막스는 라피노 데 이스빨리스(Latino de Hispalis)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는다: “라피노, 나 이제 소리 지를 힘도 없어… 화가 나 죽어버릴 것만 같아! 췌기풀을 씹는 것처럼 씹쓸한 기분이야. 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 놀라진 않았지만 고문을 두려워했어. 요즘 저들이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검은 전설은 말이야. 스페인의 역사 그 자체야.”<sup>5)</sup>

이후로 바예 잉플란이 비판하고 있는 스페인의 역사, 검은 전설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재조명된다. 후데리아스(Juderías, 1877-1918)는 처음으로 스페인에 대한 부정적 프로파간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1914년 『검은 전설과 역사적 진실(La Leyenda Negra y la verdad histórica)』에서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되어 온 스페인 역사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sup>6)</sup> 후데리아스의 글은 스페인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던 마드리드 출신의 캘리포니아 정착민 후안 C. 세브리안에 의해 1917년에 재발간되었다. 이 판본에서 후데리아스는 스페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효과를 노렸다. 이런 이유로 후데리아스의 저작은 출판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일부는 후데리아스의 논지를 보충하고 다듬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반박해 왔다. 검은 전설을 반박하는 이들은 스페인이나 스페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검은 전설에 선동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스페인)에 대해서 만들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그로테스크한 스페인인에 대한 묘사,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문화와 예술 일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부인하려는 처사다. 모든 시대에 스페인에 대항하는 고소와 고발이 있어왔다.<sup>7)</sup>

---

20Files/Content.IE5/NKQJ28X2/Ramon\_del\_Valle-Inclan\_-\_Lucas\_de\_Bohemia\_-\_v1.0.pdf (검색일자 2018년 10월 23일)

5) *Ibid.*

6) Julián Juderías, *Ibid.*

후데리아스 외에도 미국인 필립 파웰 역시 후데리아스와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스페인 검은 전설의 존재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음모로 보고 있다.

16세기를 지내면서 유럽의 정치, 종교적인 프로파간다가 스페인과 스페인의 통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몰고갔다. 그래서 억압, 잔인함, 종교, 정치적 비판용성, 4세기에 걸친 지적, 예술적 가치들은 ‘검은 전설’의 이름으로 망가졌다.<sup>8)</sup>

이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던 아놀드슨(S. Arnoldsson)은 13세기 아라곤 왕국이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시칠리 섬을 차지함으로써 지중해에서의 스페인의 헤게모니 장악에 불편했던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유대인과 무슬림이 뒤섞여 사는 야만족의 나라라고 폄하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반스페인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인들은 후데리아스나 파웰의 글이 그 어떤 과오도 반성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후데리아스와 그의 저작은 수정주의의 극치였으며, 반동적이고 회피적인 사고의 소산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검은 전설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는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 의한 이단자(유대인) 색출과 화형, 중남미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의 원주민 박해와 처단, 1609년에 있었던 모리스코(개종무슬림)의 추방, 등이 그것이다. 알바 공작(Duque de Alba)의 네덜란드 신교도 박해 역시 검은 전설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알바공작은 1567년 네덜란드로 총독으로 파견되어 당시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유럽전역에서 퍼져가던 신교도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맡았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알바공작의 신교도 박해는 사실보다 과장된 형태로 빠르게 유럽에 퍼져나갔고 반스페인 정서형성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검은 전설의 유포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대륙 정복에 함께 동행했던 바르톨로메 데 라스 까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1484-1566)

7) *Ibid.*

8) Philip Powell, “LA LEYENDA NEGRA. UN INVENTO CONTRA ESPAÑA”. *Libertad digital*, <https://www.libertaddigital.com/opinion/fin-de-semana/la-leyenda-negra-un-invento-contra-espana-1276234287.html> (검색일자, 2017년 3월 13일)

신부와 지금의 네덜란드(Países Bajos)의 총독으로 갔다가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어낸 기예르모 데 오랑헤(Guillermo 1 de Orange), 그리고 펠리페2세의 총복이었다가 미움을 받고 물러났던 안토니오 페레스(Antonio Pérez)가 있다. 바르톨로메 신부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들의 노예화를 반대하고 이들의 인권을 처음으로 문제 삼았던 자였으나 그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르톨로메와는 반대로 후안 페르피냐(Juan Nuix de Perpiña)는 스페인 정복민들의 비인간적인 폭력과 박해에 대해서 당시 원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정복민들의 화형이나 비인간적인 폭력 때문이 아니라, 정복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게 되고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이 병으로 인하여 다수 죽어갔다고 증언했다.

과물적이고 비인간적인 만행은 악명높은 포르투갈의 노예상을 통해서도 저질러졌고 스페인 외의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식민지인에 대해 자행되었다. 라스 까사스(Las Casas)가 모은 자료들에 대해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와 인디오들의 집단 사망은 대농장제도에 따른 중노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유도 있었지만,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따라온 전염병과 문화적 충격에 의한 이유가 컸다.<sup>9)</sup>

그는 당시에는 스페인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 중남미에 식민지를 개척했던 국가들 모두 원주민에 대한 인권을 내세워던 시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버트(Hubert Herring)은 식민지 개척에서 야기된 스페인의 폭력성에 반발하여 원주민들의 인신공양에 대해서 지적하며 스페인인들이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여 이들을 교화시키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버트는 스페인이 인디오들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인디오들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주었다. 스페인인들은 인신공양, 성적학대,

---

9) Nuix y Perpiña, Juan, S.I., *Reflexiones imparciales sobre la humanidad de los españoles en las Indias, contra los pretendidos filósofos y políticos : para ilustrar las historias de MM. Raynal y Robertson / escritas en italiano por el Abate Don Juan Nuix ; y traducidas con algunas notas por D. Pedro Varela y Ulloa...*, Fondo Antiguo de la Universidad de Sevilla, 1782, p. 310

고문 등으로 고통받는 인디오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서 그들 사회에 만연해있던 인신공양의 폐해를 없앴다.<sup>10)</sup>

한편, 파월은 개종유대인인 곤베르소에 대한 종교재판소의 박해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된 유대인들의 반감 때문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말과 행동 일체가 스페인에 대해 비우호적이었고 네덜란드, 영국, 신대륙에까지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과 이교도 추방에 대한 아픈 기억은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서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스페인 편에 서는 나라가 거의 없게 되었다.<sup>11)</sup>

후데아리스는 기예르모 오랑헤(Guillermo Orange)가 『변명(Apologia)』(1580)에서 스페인의 무자비한 신교도 탄압을 비판하게 된 원인이 검은 전설 때문이라고 보았다. 후데리아스는 펠리페2세의 신복이었던 기예르모가 독일에서 유폐되었던 반스페인 정서를 담은 프로파간다성 전단지지의 영향으로 신교도로 개종했다고 반박했다. 안토니오 페레스(Antonio Pérez)는 펠리페2세의 비서로 있다가 쫓겨나서 영국에서 『관계(Relaciones)』(1592)를 지어 유폐시켰는데, 이 책에서 포르투갈의 왕으로 있던 펠리페2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왕위 계승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에 있던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Juan de Austria)의 측근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책의 유폐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스페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질이나 선원 납포 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지만, 후데아리스는 안토니오 페레스가 뇌물수수죄에 걸려 펠리페2세로부터 쫓겨난 뒤,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거짓 사실들을 유폐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은 전설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의 유폐가 불러온 파장은 비단 16-17세기에서 뿐 아니라,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검은 전설의 유폐로 인해 생겨난 반 스페인정서는 소위 ‘스페인 혐오주의(hispanofobia)’를 야기시켰고, 1936년에서 1939년에 걸쳐 일어난 스페인 내

10) Hubert Herring, "A History of Latin America." *The Americas* (New York: Alfred A. Knopf, 1955, Academy of American Franciscan History. 2015, pp. 152-153.

11) Philip Powell, *Ibid.*



전으로까지 이어져 냉혹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스페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한 나라나 개인에 대한 확증되지 않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같은 정보의 위장과 유출은 자칫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집단무의식으로 인하여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 검은 전설 뿐 아니라, 가짜 뉴스의 유포는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실왜곡으로까지 이어져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자아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검은 전설’이라는 부정적인 반스페인 정서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빨간 독수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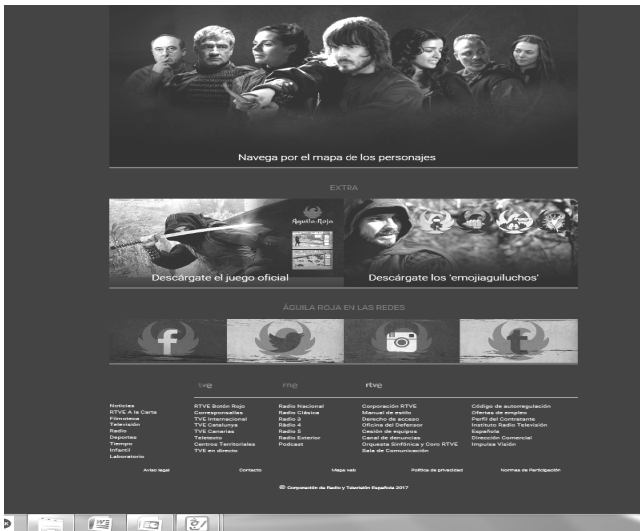
## 2. 〈빨간 독수리〉: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한 대중담론의 형성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방영되었던 스페인 역사 드라마 <빨간 독수리(El siglo de Ávila Roja)>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서로 씨실과 날실이 되어 “그랬어야만 하는(debería ser)” 역사를 가정해낸다. 드라마의 배경은 스페인에서 가장 무능력했던 왕으로 치부되는 펠리페4세 시대로 전쟁과 부패관리들의 폭정으로 나라가 피폐해져 갔고, 포르투갈의 독립과 프랑스, 영국 등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왕권은 물론이고 국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난세에 주인공이자 펠리페4세의 사생아인 곤살로(Gonzalo)는 학교선생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원수를 갚고자 영웅으로 변신하여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해주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서 왕비였던 어머니를 궁중에서 쫓아낸 귀족들을 한 명씩 처단하고, 프랑스 귀족과 결탁하여 아버지(펠리페4세)를 폐위시키고자 음모를 꾀한 사제 멘도사(Mendoza)를 처벌하고 아버지를 지킨다.

이 드라마에서는 17세기 스페인 희곡 중에 많이 등장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접근방법이 당시 작가들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빨간 독수리>를 책으로 펴낸, 『빨간 독수리의 세기El siglo de Águila roja』의 저자 호세 앙헬 마냐스(José Ángel Mañas) (Planeta 2014)는 책의 서두에서 주인공 곤살로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스페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에서 유포한 검은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길라 로하의 본명은 곤살로, 그는 당시 평범한 스페인인들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영국의 해적들과 거래를 할 정도로 그는 복유럽과 영국에 널리 퍼져있던 ‘검은 전설’에 매우 가까운 사상을 품고 있었다.<sup>12)</sup>

호세 앙헬 마냐스가 밝힌 것처럼 드라마에서 곤살로는 검은 전설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대중들은 곤살로의 반스페인적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드라마가 갖고 있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적 특성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림 1] <빨간 독수리>의 홈페이지

트랜스미디어란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에 갖가지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를 말한다.<sup>13)</sup>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는 텍스트와 그림, 영상 등의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

12) José Ángel Mañas, *El siglo de Águila Roja*, Editorial Planeta, 2014, p. 20

13) Carmen Costa y Teresa Piñeiro, *Ibid.*,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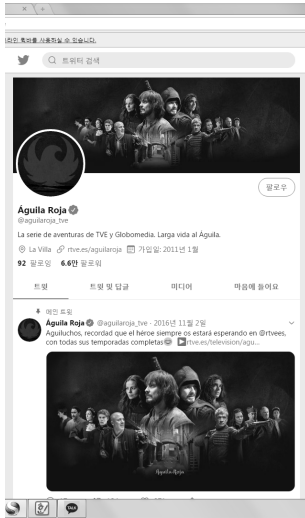
하며 독자와 관객을 유혹해왔는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접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대중의 욕구에 맞추어 만화나 게임, 영화 등의 단일한 장르나 매체에 갇히는 대신, 서로 결합하며 다채로운 형태로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경계를 허문 이야기와 기술의 융합이 대중이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경험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한다.<sup>14)</sup> 트랜스미디어는 현대의 미디어적 환경과 다변화된 사용자 욕망에 부합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창작 방법론의 하나로 저작기술이나 게임화 및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의미한다. <빨간 독수리>는 rtve 스페인 국영방송 홈페이지<sup>15)</sup>에 들어가면, 드라마 뿐 아니라, 관련 게임<sup>16)</sup>을 앱으로 받아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드라마 홈페이지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의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함께 스토리 제작에 참여하는 폭이 넓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트위터 모바일에 접속하면 Águila Roja@aguilaroja\_tve와 <https://www.facebook.com/aguilaroja>에 들어가서 시청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드라마 제작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왓츠앱(What's app)으로도 등장인물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었다. 여기서는 좀더 독창적인 방식으로 드라마를 재구성하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드라마의 등장인물들간의 그룹채팅을 통해서 드라마의 구성과 다른 결론을 시도해본다. 예를 들면, 곤살로가 그의 친부 펠리페4세의 초대편지를 기다리는 111편 드라마 내용을 토대로 “만약 이들이 서로 왓츠 앱을 통해 채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다. 실제 장면에서는 펠리페4세가 자신의 사생아인 곤살로와 그의 아들에게 마부와 마차를 보내 정중하게 궁으로 초대하게 되지만, 그 근간에는 항상 곤살로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긴장감이 감돌지만, 왓츠앱 상에서는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격의 없는 어투로 대화함으로써 드라마에서 긴장의 주원인이었던 부자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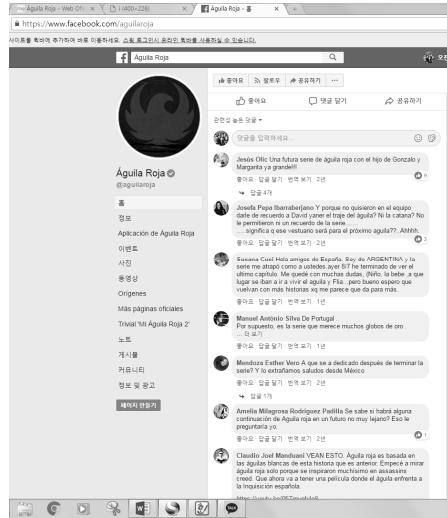
14) *Ibid.*, p. 112.

15) <http://www.rtve.es/television/aguila-roja> (검색일자 2018년 2월12일)

16) <http://www.rtve.es/television/aguila-roja/juego>(검색일자 2018년 2월 14일)



[그림 2] <빨간 독수리>의 트위터



[그림 3] <빨간 독수리>의 페이스북



[그림 4/5] <빨간 독수리의 왓츠앱>

곤살로: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곤살로예요. 우리들이 얘기를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시죠? 110편에서 제가 당신을 계속 좇아다녔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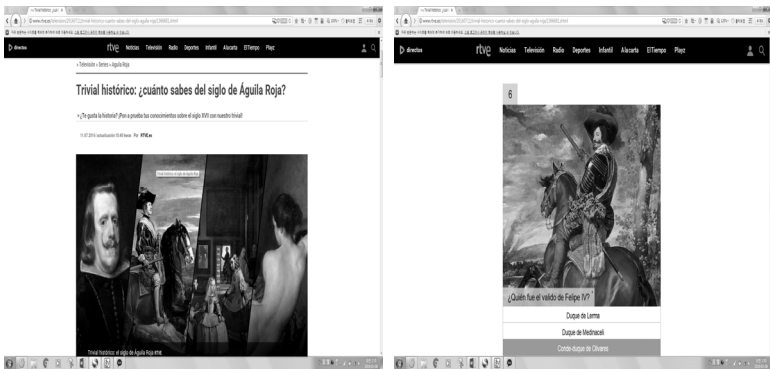
펠리페4세: 물론이지, 아들아! 며칠 우리집에서 머물 준비를 해라. 네 아들 알론소도 데리고 오지 그러니? 너도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지? 혹시 모르니 집의 위치를 알려줄게.

곤살로: 정말 신나네요. 아들과 함께 대문을 두드릴까요? 아니면 도착 해서 왓츠앱으로 알려드릴까요?

펠리페4세: 좋아, 너에게 운전수를 보내는게 더 낫겠구나! 그러면 네가 주차할 필요가 없잖니? 주차가 갈수록 문제야.

사투르: 저도 갈수 있나요? 제가 토끼를 가져가서 요리해드릴게요. 제가 함께 가야될 이유는 충분해요.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하여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다. (그림 6)에서 “너는 <빨간 독수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라는 질문을 통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역사관련 퀴즈들을 넘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역사를 교육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오른쪽 화면에서 “누가 펠리페4세의 심복이었는가?”(그림7)에 대한 답은 드라마를 시청했다면 올리바레스 공작이라는 답을 쉽게 하게 되는 것 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왔던 시청자들의 반응과 호응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트랜스미디어의 소통과 참여적 특성을 잘 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7] 〈빨간 독수리〉 홈페이지의 퀴즈

그렇다면, 대중적인 호응이 컸던 <빨간 독수리>에서 다루고 있는 검은 전설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스페인 대중들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곤살로와 그의 심복 사투르의 상반된 역사적 시각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떻게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짓기를 하고 있는지, 주인공 곤살로의 입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반 스페인 정서와 자아바판적인 시각에 시청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검은 전설 전체를 다룰 수 없으므로 개종무슬림인 모리스꼬의 추방과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안, 신대륙 개척을 둘러싼 영국과의 갈등 및 중남미 원주민 정복 및 종교재판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 3. 검은 전설의 탈신화화

#### 3-1. 모리스꼬의 추방

모리스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7세기 세르반테스의 작품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세르반테스의 작품 중에서 모리스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돈키호테(*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의 「포로이야기」와 『알제리에서의 거래(*El trato de Argel*)』이다.



[그림 8/9] capítulo 21: 모리스꼬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이를 막는 사투르

『돈키호테』에서는 ‘소라이다’라는 모리스꼬 상인의 딸이 등장하고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는 알제리에 잡혀 온 기독교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리스꼬 여인 ‘자하라’가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보석을 팔

아서 기독교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세르반테스는 이들의 묘사에서 자신이 직접 알제리에서 겪었던 기독교 포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망을 그려내고 있다.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무슬림 여인의 개종까지 이끌어내는 영웅적인 자아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수함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시대적인 요청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빨간 독수리><sup>17)</sup>에서도 모리스꼬에 대한 스페인인의 부정적인 집단무의식이 잘 드러난다. 1609년 펠리페3세 시절, 대대적인 모리스꼬 추방사건이 있는 뒤, 미처 스페인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리스꼬의 고아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들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고아원을 방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사투르가 고아로 버려졌을 때 그를 키워 준 모리스꼬 양어머니가 마을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녀에게 돌을 던진다.(그림 8) 이러한 장면은 당시 모리스꼬에 대한 스페인인의 혐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사투르가 고아로 버려져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려하지 않을 때, 그를 거두어 준 유일한 사람이 모리스꼬였다는 설정을 통해 모리스꼬에 대한 17세기 스페인 사회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뒤엎고 있다는데 드라마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사람들: 빨리 그 모리스꼬 여인을 끌어내라!

사람들: 너희들끼리 나가 살아라!

사람들: 살인자!

사람들: 살인자!

(경찰들이 길을 비껴주자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고 여인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듣고 사투르가 광장으로 달려온다.)

사투르: 멈춰!

사투르: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어!

사투르: 당신들이 이 여인을 죽이겠어!

사람들: 그 여자는 마녀야!

(capítulo 21 중에서)

---

17) <http://www.rtve.es/alacarta/videos/aguila-roja/aguila-roja-cap21/705225/>  
(검색일자 2018년 2월2일~2019년 1월29일)

사람들이 모리스꼬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사뚜르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는 바람에 모리스꼬와 마을 주민 간에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녀와 함께 왔던 모리스꼬들이 다시 알제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서 세르반테스의 작품에 나타난 것같이 모리스꼬가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나오는 대화는 주인공이자 학교 선생인 곤살로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리스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대목이다. 아이들은 모리스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고 있고 곤살로는 이들과 이미 함께 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존재들임을 깨우쳐주고자 한다.

자, 누구 모리스꼬에 대해서 아는 사람있나요?

-어떤 이들은 모리스꼬가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아서 거무스레하다고 해요.

-꽤 과학적인 설명인데...가비(Gabi), 모리스꼬는 스페인 땅에서 태어난 무슬림혈통 사람들로 나중에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 그리고 나서 추방당했...

-그러면 그들은 왜 스페인으로 왔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서죠.

-스페인 제국은 우리들의 것이야, 그들은 그걸 빼앗을 수 없어

-누뇨(Nuño), 그들 역시 스페인에서 태어났어.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 낫다고 생각하니?

-전 그들이 싫어요, 아버지. 웬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 모리스꼬랑 살고 싶지 않아요.

-알론소, 너희들은 그들을 싫어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 달력, 아라비아 숫자, 물레방아, 종이,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발명품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살인자들이에요.

-알론소, 나쁜 사람들은 ... 잘못이 없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어. 모든 모리스꼬가 다 나쁜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된 뒤에 우리는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Capítulo 21)



곤살로는 스페인 왕국이 모리스코를 추방한 이후, 스페인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공존을 삶을 강조한다.

모리스코의 추방 등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들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능력있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젊은 나라였는데, 그들이 나간 뒤, 금방 늙어버렸어. 우리의 원수들이 그런 우리를 비웃고 있다.  
(Capítulo 21)

곤살로의 이같은 사관은 ‘오늘날 스페인의 진정한 기원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통 역사관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아메리코 가스프로(Américo Castro)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한 국가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로 주민들이 집단을 이루어 환경에 대처하면서 형성해 가는 역동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주거지 개념인 ‘생의 주거지(morada vital)’<sup>18)</sup>을 제시하여 무슬림/기독교인의 종교적, 민족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집단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면서 한 국가를 이루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2. 중남미 정복과 원주민 학살

두 번째 사안은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 정책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빨간 독수리>에서 영국 해적으로 스페인을 괴롭혀 온 블레이크가 잡혀서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리처드 블레이크(Richard Blake)는 실존인물 프란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를 허구화한 인물이다. 이 때 곤살로는 그를 몰래 살려주고 영국으로 도망하도록 도와준다. 곤살로는 식민지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에게 박해와 폭정을 일삼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빈곤과 실패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와는 반대로 영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화폐경제를 발전시켜서 자본주의로 진일보했다면 긍정

18) Américo Castro, *La realidad histórica de España*, México: Porrúa, 1987, p. 109.

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블레이크경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를 풀어주게 된다.

물론, 곤살로가 블레이크를 구해주는 사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블레이크경의 부인 마리아나(Mariana)가 스페인 출신 여성이라는 점과 그녀가 주인공 곤살로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설정을 하고 있다. 오래 전, 곤살로가 지금의 블레이크의 아내가 된 마리아나와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블레이크가 탄 영국 해적선이 곤살로와 그녀를 살려주었다.

-그가 내 생명을 구했어.

-누구요? 원숭이 아니면 해적?

-오래전, 내가 탄 배가 난파되었을 때...나는 나무판자에 의지해서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지.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었어. 나는 죽기 직전에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었어. 그가 리차드 블레이크였어.

-그럼 당신이 해적선을 뺏다고? 당신이 해적이었어?

-물론 아니지. 그러나 몇 달 간 해적선에 있었지.

-아주 오랜데요?

-결국 그들은 나를 바르바도스(Barbados) 항구에 내려주었지.

-바르바도스 항구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여행에서 한 연인을 만났어. 내가 크리스티나랑 결혼 하기 전에 사귀던 여성이야. 해적들이 그녀도 구해줬어. 그녀 이름이 마리아나였어. 결국 그녀는 드레이크랑 결혼했어.

-그게 그러니까(웃으며) 그게 다야.

-이제 그 말은 그만할래?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난 그 해적을 구해 줘야 해.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 그가 날 위해 해 준 모든 것. 그는 나를 형제처럼 대해줬어.

-말도 안 돼. 그건 스페인을 배신하는 행위야.

-난 내 빚을 갚아야해.

-그 해적은 우리에게서 금 덩어리를 빼앗았다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금을 빼앗아 세금을 올려놓고 우린 굶어죽게 되었어. 하나님 댁소사!

-스페인 왕국은 인디오들을 죽이면서 금을 빼앗았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은 달라. 어떻게 우리가 인디오와 같으냐고? 스페인인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자 형제잖아!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야.

- 그건 못된 어머니의 아들이 성자라는 것과 같은 거야.
- 그런 말 하지 마. 스페인인들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어.
-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 그만 하자.(capítulo 35)

해적 블레이크가 곤살로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곤살로가 블레이크경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행위가 시청자들에게 좀 더 설득력을 갖게 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블레이크를 비롯한 당시 영국의 해적에 대한 스페인인의 증오는 컸다고 하겠다. 여기에 스페인 태생의 부인 마리아나와 블레이크 사이의 국경을 초월하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낭만적 요소가 더해져서 시청자들의 동정과 공감을 자아내게 한다. 블레이크를 구출하는 것에 정당성을 갖게 해 준 또 하나의 요소는 당시 스페인 왕국의 내부적인 부정부패다. 왕의 고해성사를 맡은 멘도사(Mendoza) 사제는 블레이크가 약탈한 보물을 자신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를 풀어 주겠다는 뒷거래를 통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블레이크가 이러한 사제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자 멘도사는 그의 부인 마리아나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블레이크에게 해적질에서 얻어낸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오게 한다. 멘도사는 자신의 계략이 탄로 나지 않게 하려고 블레이크가 아닌 다른 사형수의 목을 베어 브레이크가 참수되었다는 것을 온 마을에 알린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블레이크보다 멘도사에게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집단에 편향된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그림 10] capítulo 35:  
멘도사가 블레이크경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11] capítulo 35: 멘도사는  
블레이크경의 부인을 인질로 삼고  
블레이크를 보내줌



[그림 12] capítulo 35, 시계방향으로  
 멘도사와 블레이크의 밀담/인질로 잡힌  
 마리아나/블레이크의 거짓 참수

- 내가 당신을 죽이게 하지 마.
- 왜 빨리 죽이지 않고.
  - 너의 재산 때문이야.
  - 나는 내 금을 숨긴 곳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나를 죽이라고
  - 과연 그렇게 될까?
  - 그녀를 풀어줘.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
  -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야. 이제야 제 정신이 드는 구먼
  - 너는 당장 카디스로 가라. 거기에 배가 있어. 그 배 속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게 있지.
  - 금을 가져오려면 가라. 6개월이야. 6개월에서 하루도 더 줄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네 부인이 살아있지 못할 거야
  - 돌아오지 마세요. 금을 들고 오지마세요.
  - 자 이제 작별인사 그만하고
  - 약속을 꼭 지켜야해. 블레이크. 우리가 네 부인을 지키고 있을 테니
  - 여보, 내 돌아오리다.(Capítulo 35)

곤살로는 스페인인들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이 신대륙 식민지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행위는 정당화시키면서 영국이 자국의 부를 위해서 해적질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곤살로의 시각에서 볼 때, 블레이크가 멘도사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해적질을 통해 탈취한 금은보화를 지키려 한 것은 그들(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바다에서의 약탈”인 영국의 해적질과 “땅에서의 약탈”인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은 자국의 이해와 관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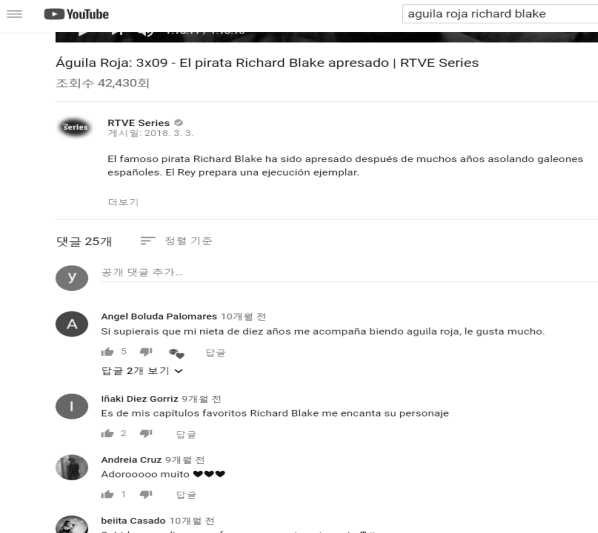
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썸이다. 오히려, 자기 개인만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블레이크의 보물을 담보로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거래하는 멘도사 사제가 스페인의 입장에서 더 부당하다고 보겠다. <빨간 독수리>의 트위터에 참여하여 “누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느냐?”(그림 13)는 질문에 던진 투표 결과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블레이크보다 멘도사에게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집단에 편향된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그림 13] 〈빨간 독수리〉의 등장인물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나는 이중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말이죠. 지난 세기, 우리 스페인인들은 상상조차 못할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카스티야의 정복자들은 멕시코와 페루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들의 금은보화를 차지했고 스페인 제국건설에 이바지했어요. 코르테스 정복자 덕분에 영국보다 2배 이상 넓은 식민지를 개척했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투르, 영국인과 네덜란드인들은 우리가 인디오에게 행한 일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했을 뿐이에요. 사실, 유일한 차이점이란 우리는 땅에서 해적이었고, 그들은 바다에서 해적이라는 점이었죠. 결국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모두 같으니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Capítulo 35)

이러한 곤살로의 의견이 당시에는 스페인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무조건 자기편 감싸기 식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아니라 냉철한 시각에서 중남미 식민지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려는 자세가 돋보인다. 유튜브 상에서 블레이크 해적이 나온 시리즈3의 35장면 밑에 적힌 댓글에서는 블레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rtve 시리즈: 그 유명한 해적 리차드 블레이크는 수년간 스페인 화물선을 약탈한 이후 체포되었다.

댓글

A: 앙헬 볼루다 팰로마레스: 만약 내 10살 난 손녀딸이 <빨간 독수리>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블레이크를 무척 좋아할 텐데.

I: 아냐키 디에스 고리스: 리차드 블레이크가 나오는 장을 가장 좋아한다. 그의 인간됨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림 14] capitulo 4: 스페인 정복민의 원주민 학살/  
광장에서의 왕의 암살시도/원주민 추장의 딸)

검은 전설의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였던 ‘원주민에 대한 학살과 정복’에 대해서 <빨간 독수리>의 시리즈4의 4장에서 다루고 있다. 원주민 추장의 딸을 잡아와서 왕의 시녀로 부리고자 하나 자신의 가족과 부족 모두가 스페인 정복민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에 대해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여인은 자신과 함께 붙잡혀온 부족들이 처형당하는 광장에서 왕을 시해하려 하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여인은 자신의 원통함을 ‘마르께사 백작부인’의 시녀로 있던 마르가리타에게 고백하게 되고 이 말을 전해들은 곤살로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도와 중남미로 돌려보내려 하나 그녀는 결국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스페인 정복민의 원주민 학살에 무게를 두고,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추장의 딸의 회상부분에서 스페인 정복민은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와서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총으로 쏘아 죽인다. 멘도사를 비롯해서 스페인 주민들은 원주민 포로들을 “콜럼버스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던가 “야만인” 혹은 “스페인 군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스페인 국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무리로 간주하고 이들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과 남편들이 전쟁터로 끌려간다고 분노한다. 곤살로는 <빨간 독수리> 전반에 걸쳐서 선한 사

람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면 망토를 입고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들을 안전하게 도와준다. 그러나, 추장의 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려는 곤살로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이러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주민이 자신들에 대한 스페인인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스페인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고, 가족과 동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정복민의 학살행위를 용서한다는 것은 순수한 소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추장의 딸에게 음욕을 품는 펠리페4세와 에르난(Hernán)은 원주민의 학살 뿐 아니라, 물질적인 수탈과 정신적인 고통과 치욕까지 마다하지 않고 저지른 중남미 정복자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이성과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자유의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고, 주관적 이상주의의 맹신이 낳은 국수주의에 의해서 왜곡된 이기주의적 애국심의 위험성을 목도하게 된다.

### 3-3.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의 부당성



[그림 15] capítulo 55:  
종교재판소에서의 곤살로의 고문장면)



[그림 16] capítulo 48: 마르가리타를  
위한 곤살로의 기도

앞에서 파웰은 종교재판소를 둘러싼 검은 전설이 유대인의 추방으로 생겨난 앙금과 개종유대인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왜곡된 역사라고 주장했는데 <빨간 독수리>에서 나타난 종교재판소와 고문이 의미하는 바는 파웰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가? 드라마의 전반에 걸쳐서 멘도사를 비롯하여 종교재판관이나 사제들의 종교적 가식과 이중인격자적 특성을 고발하고 고문의 잔인성을 폭로한다. 곤살로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은 성경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생각하기”의 교육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곤살로를 이단으로 판단하고 고문하게 된다. 여기서 오랜 기간 지속된 종교재판소의 폐해를 보여준다. 즉,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서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유대인 뿐 아니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재판소의 편협하고 비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단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곤살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신론자의 입장에 서고 그 사실을 안 사투르는 곤살로에게 신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던 곤살로는 마르가리따가 독약을 삼키고 사경을 헤멜 때, 그녀를 안고 성당으로 들어가 마르가리따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순간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곤살로가 무신론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곤살로에게 행한 종교재판의 고문은 개종유대인이나 무슬림, 마녀를 향한 중세적 의미의 고문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미신과 전통에 저항하여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곤살로는 19세기 스페인의 크라우제 철학 사상을 일면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히네르(Giner) 등 크라우제 철학자들은 진정한 종교 교육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추상적이고 도그마에 치우친 종교적 교리가 개인의 영혼에 인간적이고 동시에 신성한 의미를 각성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림 17] capitulo 54:  
화형에 처해지는 마르가리따

펠리페4세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볼 때, 스페인은 잇단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심을 갖게 하였고, 중남미 원주민들을 가톨릭으로 빠르게 개종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기적과 환상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펠리페4세의 무

19) José Luis Gómez-Martínez y Iván A. Schulman “krausismo, modernismo y ensayo,” *Nuevos asedios al modernismo*, 1987, pp.210-226.

능으로 인하여 야기된 전쟁의 패배와 배고픔,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력층에서는 힘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책임을 전가시키려하고, 주민들은 미신에 휩싸여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마녀사냥에 앞장서게 된다.<sup>20)</sup> <빨간 독수리>에서 약초를 사용해서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과부를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하고, 곤살로의 처제인 마르가리타가 왕비의 초상화에 마늘을 꽂아 주술을 행하려했다는 모함을 받고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54장에 나온다. 마녀로 몰린 이들은 평범한 어머니거나 미혼 여성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그녀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불쌍한 여성들이었다. 16, 17세기에 가난한 과부나 노파, 그리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아왔지만 장원제의 쇠퇴와 더불어 다양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전까지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빈자들에게 자선과 도움을 주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는데 중앙집권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로 가난한 과부와 노파들은 마을의 부담스런 짐이자 국가질서의 위협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마녀사냥은 민중들의 주변인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었고 다각적인 위기의 시대에 유태인이나 문둥이와 같은 주변부 집단들로 육체적으로 고립되거나 추방당하면서 종교적 정치 당국자들이 대량으로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다. 이후, 마녀사냥은 사회위기의 징조로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주변부 집단의 분리와 추방의 일환으로 여겨지면서 열광적인 민중의 호응에 힘입어 마녀들은 사회 전복의 음모를 꾸미는 적대적인 집단으로 몰려 추방되었고, 권력자들은 민중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회적 불만을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를 이용해 왔다.<sup>21)</sup>

20) 안토니오 마라발(J. Antonio Maravall)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원인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찾고자 한다. 그는 17세기가 스페인 제국의 몰락과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멸과 불안정의 주도적 감정이 질서 정착을 주도하는 가치체계와 사회 조직에 의해 여성 종속과 자유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Sandra M. Foa, "Femenismo y forma narrativa: Estudios del tema y las técnicas de María de Zayas y Sotomayor," *Hispanófila* 4, Valencia, Alvatros, 1979, p.85.

21) Henry C.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Spain*. 4 vols. New York: Ams Press,

이렇듯 어느 누구나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마녀사냥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 혼란의 책임을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여성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였다. 한편, 곤살로가 고문으로 죽기 직전, 그의 처제 마르가리타의 애인이자 펠리페4세의 조카인 후안의 도움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장면은 종교재판소가 왕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와 결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빨간 독수리>의 시청자가 올린댓글<sup>22)</sup>이 보여주듯, 마녀사냥이나 종교재판의 경우, “마녀나 이단자로 몰린 이들을 보호하려는 가족이나 이웃까지 함께 공범으로 몰아가는” 오늘날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와 다름이 없었다.

### III. 검은 전설의 극복과 영웅의 탈신화화

#### 1. 평민의 명예와 하부역사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권력을 지닌 왕과 귀족,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찰 수뇌부에 해당되는 ‘꼬미사리오’의 직책을 맡은 에르난은 하나같이 명예롭지 못한 추태를 보인다. 왕과 귀족들의 도덕적인 문란함과 군대의 민간인 수탈과 비인도적인 처사 등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군상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서 곤살로를 중심으로 하는 평민들, 학교 교사와 식당주인, 사투르, 하녀와 농부들, 그리고 모리스코 마저 “비록 가난하지만 명예를 가진” 이들로 살아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곤살로는 펠리페4

---

1966, p.180.

22) <https://www.youtube.com/watch?v=BgCmb0NC-Q> (검색일자 2018년 5월24일)



Nuno Cunha Ataide 4개월 전

Una de las características propias del procedimiento inquisitorial era que, antes de iniciar sus actuaciones procesales, los Inquisidores debían pronunciar el sermón de la fe. Después de este comenzaba un período de gracia en el que se permitía a los herejes confesar voluntariamente sus culpas sin más sanción que una simple penitencia. La lectura del sermón se llevaba a cabo en día domingo, con la asistencia de los párrocos y de representantes de las órdenes religiosas establecidas en el lugar. Dicho sermón se dedicaba íntegramente a resaltar la fe católica, exhortando a los concurrentes a ayudar en su defensa. Seguidamente, se procedía a dar lectura al edicto de gracia, el cual fue denominado, a partir del siglo XVI, edicto de la fe. En ellos se explicaba las formas de reconocer las herejías para que el común de la gente las pudiera diferenciar y, en caso de tener conocimiento de que se hubiesen cometido hechos similares, los denunciases. Todo persona que tuviera conocimiento de un acto de herejía estaba obligada a denunciarlo aunque los protagonistas hubiesen sido sus padres, cónyuges, hermanos o hijos. El móvil principal que originaba la mayoría de las acusaciones era que el silencio, en estos casos, era entendido como indicio de complicidad. Por otro lado, según las instrucciones de Torquemada, el falso denunciante debía ser sancionado con sumo rigor.

세를 폐위하려는 프랑스의 음모를 좌절시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마르가리따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멀리 떠난다. 복면차림의 아길라 로하는 자신의 애마를 타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뒤로하고 사투르가 등장하여 시청자들에게 “영웅 아길라 로하의 기억은 영원할 것이고, 악이 존재하는 한,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은 계속 등장하게 될 것”(capitulo 116)이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불구하고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항상 있는 무언가가 있다. 맞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피조물이니까. 그 인생들을 고통스럽게하는 불행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있게 마련이다. 동시에 그러한 불행에 대항하고 투쟁하는 이들도 역시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결코 불행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투쟁한다. 그러한 인생들은 감히 악에 맞서서 대항한다. 전쟁과 고문, 살인은 삶의 교훈이나 기억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자취를 남기게 된다.

(말의 울음소리)

곤살로 몬팔보와 마르가리따의 아들은 자신의 부모가 남겨놓은 길을 따라갈 것이다. 아길라 로하(빨간 독수리)의 길이 기억될 유산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Capítulo 116)

<빨간 독수리>에서 평민으로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이 등장한다. 곤살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총에 맞고 죽어가는 씨쁘리(Cipri)(그림18), 펠리페4세가 큰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철거하려고 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대항한 주민들, 자신을 빨간 독수리라고 거짓 고백한 한 도둑을 지키



[그림 18] capitulo 115: 곤살로를 대신해서 총을 맞는 씨쁘리

기 위해서 죽음으로 대항하는 곤살로의 마을 주민, 인신매매단에서 풀려날 기회를 친구에게 주고 자신이 대신 잡히는 마르가리타 등 다수의 영웅들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 이제 갈도스가 『국민일화집 (Episodios Nacionales)』에서 강조한 스페인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한다. 스페인의 정체성은 특권 계층이나 민족, 종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스페인 땅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민중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스페인의 일부가 된다는 “시와 역사를 만드는 민중들의 언어와 노래, 그리고 인간의 열정과 그로 인한 투혼, 기적을 소망하는 순박한 믿음”임을 보여준다.<sup>23)</sup> 그리고, 엘레나(Elena)는 거대한 사건보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여 민중의 집단적인 영혼 속에 녹아있는 하부역사를 중요시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스페인의 역사나 전통이 진정한 스페인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역사를 내부, 외부의 역사로 구분하여 외부역사가 내부 역사의 가면이나 위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sup>24)</sup> 이들은 모두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과 욕망을 포함해서 민중의 삶을 형성하는 개개인의 공통된 집단정신에서 스페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고, 이들이 강조한 하부역사는 우나무노의 내역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우나무노는 내역사의 집단의식 속에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스페인 민중의 양심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



[그림 19] capítulo 116: 사투르가 죽음의 길목에서 죽은 씨뿌리에게 용서를 빌자 이를 용서하는 씨뿌리



[그림 20] capítulo 79: 총을 훔치다가 잡힌 이웃을 구하려다 경찰에게 잡힌 곤살로를 풀어주는 꼬미사리오

23) Benito Pérez Galdós, *Obras Completas*, Undécima edición, Madrid: Aguilar, 1968.

24) Elena M. De Jongh, *El krausismo y la generación de 1989*, 1984, p.164

문이다.<sup>25)</sup> <빨간 독수리>는 종교재판과 원주민학살, 그리고 모리스코의 추방에 반대하는 휴머니즘에 기초한 민중의 양심이 시청자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내적인 응집력이 되어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속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을 거부하는 열린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부역사와 내역사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

## 2. 화해를 통한 트라우마의 극복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사투르의 대사가 보여주듯이 ‘기념비적인 역사’<sup>26)</sup> 속에서 권력자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어지는 권력층의 억압과 횡포, 탄압 속에서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쟁해나가는” 평민들이 만들어가는 하부역사가 검은 전설로 얼룩진 트라우마를 치유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치유에 있어서 ‘화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곤살로의 아내를 처형한 꼬미사리오는 펠리페4세의 아들이자 곤살로와 형제지간이었지만, 그들의 어머니 라우라(Laura)를 내쫓고 펠리페4세의 사촌 마리아나를 왕비로 삼고자 했던 귀족들에 의해서 곤살로와 꼬미사리오는 뿔뿔이 흩어져 자라나게 된다.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그들이 살아온 궤적이 너무나 달랐기에 서로에게 남긴 상처로 괴로워하지만, 펠리페4세를 암살하려는 외적의 음모를 물리치는 데에 힘을 합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곤살로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펠리페4세의 무능함에 분노하고 어머니의 처형에 가



[그림 21] capitulo 98 총살의 위기에서 펠리페4세와 왕비를 구하는 빨간 독수리

25) Unamuno, “Da la enseñanza superior en España,” *Revista Nueva*, II, agosto-diciembre, 1899, p.55. <http://www.ellibrototal.com/ltotal/ficha.jsp?idLibro=2436> (검색일자 2017년 4월18일)

26) 게오르그 루카치(1987), 『역사소설론』 (이영욱 역), 서울: 거름신서, 50쪽.

담했던 귀족들을 한명 한명 암살하는 복수의 화신이 되지만, 복수가 곤살로에게 평정을 안겨주지 못한다. 대신에 곤살로는 혁명을 외치며 공화국 건설을 주장하는 혁명가들에게서 펠리페4세와 왕비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비로소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해 용서하게 된다. 이처럼 <빨간 독수리>의 구



[그림 22] capitulo 116: 곤살로와 꼬미사리오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하려다 시민들의 반란에 부딪히게 됨

성상의 특성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압제와 폭정이 결국 자신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가 자신의 폐부를 찌르게 된다는 점이다. 펠리페4세가 죽이고자 했던 ‘빨간 독수리’가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이나, ‘빨간 독수리’의 정체를 캐기 위해서 무참하게 고문했던 꼬미사리오가 곤살로(빨간 독수리)가 바로 자신이 찾던 친동생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치유되어진다. 꼬미사리오는 곤살로가 자신의 친동생임을 알고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그를 도와주고, 조카인 곤살로의 아들을 자신의 부하로 두게 된다. 그리고, 부인인 루크레시아가 곤살로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부인을 괴롭히지만, 멘도사의 음모를 물리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루크레시아에게 진정 용서를 구하고 함께 스페인을 떠난다. 한편, 곤살로의 신임을 서로 받으려고 경쟁관계에 있던 씨뿌리를 미워했던 사뚜르는 치명상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멸시했던 씨뿌리의 영혼을 만나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한다. 펠리페4세는 곤살로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그와 화해하기를 애쓰지만, 멘도사의 사주로 인해 곤살로와 꼬미사리오를 처형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지만, 처형장에 몰려든 시민들의 봉기로 인해 두 아들을 모두 풀어주게 된다. 이때 펠리페4세와 곤살로/꼬미사리오의 복수의 고리를 끊게 해 준 것은 다른 아닌 평민들의 힘이었다.

####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은 전설’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주인공 곤살로는 수긍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빨간 독수리’는 스페인 역사상 ‘백치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무능했던 펠리페4세를 배경으로 포르투갈의 독립 등 부끄러운 실책들과 왕족과 귀족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알이 파헤치고, 검은 전설에 대해서도 ‘홀리안 후데리아스’나 ‘필립 파웰’처럼 스페인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은 전설의 유포자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은 전설을 폭로하고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과거의 역사들에 대해서 열광한다. 시청률 상승이 비결을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종교적으로 열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sup>27)</sup>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드라마의 흡입력을 높였다는 평가<sup>28)</sup>가 우세하다. 그와 아울러 등장인물에 비중을 두고 볼 때, 권력을 갖지 못했지만,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깊은 성찰을 통해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는 주인공과 주변의 평민들에 대한 높은 평가도 시청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림 23] capítulo 116: 빨간 독수리의 마지막 장면과 사투리의 독백

검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주제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종교재판을 통한 마녀사냥과 중남미 원주민의 학살 등은 가해자인 스페인인들이 여성이나, 이교도, 그리고 원주민을 일방적

27) Artemis Razmipour y Álvaro Mellizo, “Aguila Roja’ triunfa en Iraní a pesar de ser ilegal allí 12.02.2016-12:02h <https://www.20minutos.es/noticia/2671555/0/aguila-roja/exito-iran/ilegal/> (검색일자 2018년 10월 22일)

28) ‘Águila Roja’ se despide tras nueve temporadas de éxito en La 1 26.10.2016 | actualización 13:42 horas Por PRENSA RTVE <http://www.rtve.es/rteve/20161026/aguila-roja-se-despide-tras-nueve-temporadas-exito-1/1432520.shtml> (검색일자 2018년 10월 22일)



으로 확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무자비한 정복 전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혐오주의(*hispanofobia*)라는 부정적인 정체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빨간 독수리>는 기념비적인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평민들의 일상을 전면에 내세워 귀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귀족/평민, 나/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스페인 역사를 고찰해보려는 노력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검은 역사’ 또는 ‘가짜 뉴스’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참고문헌

-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이영욱 역), 서울: 거름신서, 1987, 50
- 김희경,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세계』,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김기홍 외 9 공저 『문화콘텐츠와 트랜스미디어 -어벤져스에서 오즈의 마법사까지-』, 문화콘텐츠학총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 <아길라 로하 드라마 사이트>  
<http://www.rtve.es/alacarta/videos/aguila-roja>
- ALVAR, Alfredo, *La leyenda negra*. Madrid: Akal, 1997.
- ARNOLDSSON, Sverker, *La Leyenda Negra*. Estudios sobre sus orígenes. Gotemburgo: Göteborgs Universitets Årsskrift, 1960.
- CARBIA, Rómulo D. *Historia de la leyenda negra hispano-americana*. Molina Martínez, Miguel (estudio preliminar). Madrid: Marcial Pons Historia, 2004; primera edición 1943.
- ESPAÑOL BOUCHÉ, Luis, *Leyendas Negras: vida y obra de Julián Juderías: la leyenda negra antiamericana*. Salamanca: Junta de Castilla y León, 2007.
- COSTA SÁNCHEZ, Carmen, “Nuevas narrativas audiovisuales: Multiplataforma, Crossmedia y Transmedia: El caso de Águila Roja (RTVE)” *Revista de comunicación y tecnogías emergentes*, Vol.10-No.2, Madrid, 2012, pp.102-125.
- GARCÍA CÁRCEL, Ricardo; Mateo Bretos, Lourdes, *La leyenda negra*. Madrid: Altamira, 1990.
- GARCÍA CÁRCEL, Ricardo, *La leyenda negra*. Barcelona: Altaya, 1997.
- GIOGLIOTTI, C. “The Ethical Life of the Digital Aesthetic,” *The Digital Dialectic. New Essays on New Media*. Boston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9.
- GÓMEZ TRUEBA, T., *Creación literaria en la Red-Antecedentes teóricos*

- y literarios de la hiperficción*, 2009. [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22/cre\\_red.html](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22/cre_red.html), 16 de mayo de 2018.
- JUDERÍAS, Julián, *La Leyenda Negra*. Salamanca: Junta de Castilla y León, 2003; primera edición de 1914.
- KAMEN, Henry, *The Spanish Inquisition: A Historical Revision*. New Haven & Londres: Yale University Press, 1999, edición revisada; primera edición 1965.
- LEVI p. *Collective Intelligence: Mankind's Emerging World in Cyberspace*. (R. Bononno, Trans.), New York: Perseus Books, 1999.
- MALTBY, William S., *The Black Legend in Englan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Mañas, José Ángel(2014) El siglo de Águila Roja, Planeta, 1971; primera edición 1968.
- MARÍAS, Julián, *España Inteligible. Razón Histórica de las Españas*. Alianza Editorial, 2006; primera edición 1985.
- MOLINA MARTÍNEZ, Miguel, *La leyenda negra*. Madrid: Nerea, 1991.
- MORADIELLOS, Enrique, “Más allá de la Leyenda Negra y del Mito Romántico: el concepto de España en el hispanismo británico contemporaneísta”. En *Saz, Ismael. Ayer* (Asociación de Historia Contemporánea) (31): 183-199. Archivado desde el original el 3 de diciembre de 2015. Consultado el 6 de febrero de 2011.
- NELSON, T., *Multimedia and Hypertext: The Internet and Beyond*, Boston: AP Professional, 1995.
- NOYA, Javier, *La Nueva Imagen de España en América Latina*. Ed. Tecnos y Real Instituto Elcano, 2009.
- PÉREZ, Joseph, *La leyenda negra*. Gadir, 2009.
- PETERS, Edward, *Inquis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POWELL, Philip Wayne, *Tree of Hate*. Valecito, California: Ross House Books, 1985, primera edición de 1971.
- POWELL, Philip Wayne, *La leyenda Negra*. Barcelona: Áltera, 2008.
- POWELL, Philip Wayne, “LA LEYENDA NEGRA. UN INVENTO CONTRA

ESPAÑA”. *Libertad digital*, <https://www.libertaddigital.com/opinion/fn-de-semana/la-leyenda-negra-un-invento-contr-espana-1276234287.html> (검색일자, 2017년 3월 13일)

ROCA BAREA, María Elvira, *Imperiofobia y leyenda negra. Roma, Rusia, Estados Unidos y el Imperio español*. Madrid: Siruela, 2016.

VACA DE OSMA, José Antonio, *El Imperio y la leyenda negra*. Madrid: Rialp, 2004.

❖ ABSTRACT

## Águila Roja: The Demythification of Black Legend and the Will to Overcome

Lim, Juin

Águila Roja concentrates on Spain's dark history and societal influences and through this, it reinterprets the reality of Black Legend which were instances and events in their history that they had wanted to hide. In this process, this drama features many incidents: such as the Inquisition and the judge's injustice, persecution and massacre of Native American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conflicts with English pirates, persecution and the deportation of Morisco. Through the main character Gonzalo's perspective, this drama tries to reinterpret history not in an Ethnocentrism view, but in a relativism view that reviews and interprets the dimension of humanism. The leading characters in this drama are the common people of the time. In a society where the nobility was known as being notably corrupt, the commoners sought to preserve their honor despite their poverty, and formed a stance that was opposed to the nobility. Even though they weren't of fancy dress or of means and suffered from poverty, their pure love and passion was embodied as Águila Roja. As the drama drew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through Twitter, Facebook, and a computer game of Águila Roja, the history was reinterpreted in a broad and modern perspective. The drama, which was broadcast not only in Spain, but also in the Arab world, has a flexible approach to the expulsion of Morisco due to its prominent religious conflicts. Torture because of the Inquisition and the Native South American massacre, which was the main point of Black Legend, was accepted in society, and European's critical view found that it stood to change and denounced the Catholic's rigidity and inhumanity. But at the same time, the

tolerance of the commoners and the image of humanitarian experiencing a reconciliation at the pagan and the natives review of the theories, establishes a new benchmark for correcting the history which was fabricated by politicians at that time.

Key Words : Águila Roja, tolerance, Morisco, Back Legend, reconciliation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